

#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비교

## A comparison of reaction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이강이\*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Lee, Kang Yi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Korean mothers' and fa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The survey with questionnaire was performed with 179 mothers and 179 fathers of children aged three to five-years-old from three child care centers in Seoul and Kyoungki Province. Parental emotion-related practices regarding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assessed with an adaptation of the CCNES-R(Cortes, 2002), and parental reactions were categorized as problem-focused, emotion-focused, expressive encouragement, emotion-teaching, punitive, parental distress and minimizing.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Korean mothers and fathers, in general, used more positive reactions than negative reactions when their children showed negative emotions, in particular problem-focused reactions were mostly used. In addition, Korean mother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fathers on problem-focused and emotion-teaching reactions. Second, Korean mothers' and fathers' reactions to their children's negative emotion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 educational level of mothers, mothers' job and fathers' job.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reactions according to children's sex and age.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implication for an association between parent'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and parent's socioeconomic background.

Key Words : negative emotions, mothers' reactions, fathers' reactions, emotion socialization

## I. 문제 제기

특정한 정서적 경험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은 개인이 정서적 경험을 표현하고 이를 해석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아동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고 정서적 표현행동을 결정하고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서표현을 학습하게 되며 점차 다양한 정서상태가 표현되거나 표현되어서는 안 되는 사태에 대한 사회적으로 학습된 이해인 표현방식을 인식한다(Masters & Carlson, 1984; 김희정, 1994에서 재인용). 정서를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조절하며 환경에

반응하는 행동이라고 보는 관점이 제기되면서, 아동이 특정한 양식의 정서적 표현을 받아들이고 이를 사회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정서 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정서능력의 발달에 대하여 Denham(1998)은 부모를 비롯한 주요 사회화 담당자들이 아동에게 자신들의 정서를 보여주거나, 아동의 정서에 반응을 보이거나, 정서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 등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문화로부터 수용할만한 정서능력을 형성하게 한다고 하였다(신양재, 2004).

그 중에서도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내면화된 정서 규범에 따라 아동의 행동에 보상을

\* Corresponding author: Lee, Kang Yi

Tel: 02) 880-1452, Fax: 02) 871-2506

E-mail: kangyil@snu.ac.kr

\*\* 아동가족학과 교수 겸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중으로써 자녀가 그 정서를 유발하는 상황이나 정서적 반응을 추구, 혹은 회피하는 것을 학습시키며, 그 정서에 대한 특정한 평가 방식을 발달시키도록 하여, 문화적 기대에 적합한 정서표현이나 경험을 하도록 자녀의 정서를 규제하게 된다(Saarni, 1999). 부모가 집에서 부모 자신의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한 유아는 특정한 정서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알게 된다(Denham, Zoller, & Couchoud, 1994; Eisenberg, Cumberland, & Spinrad, 1998). 또한 부모가 아동이 보이는 정서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정서의 표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학습하기도 한다(Dunn, Brown, & Beardsall, 1991; Saarni, 1999).

자녀의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직접적인 정서사회화와 관련해서 정서와 관련된 자녀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사회화하는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면 유용하며(Eisenberg et al., 1998), 아동의 정서 사회화에 있어서 어머니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반응 양식을 통해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Eisenberg, Fabes, Carlo, & Karbon, 1992; Cassidy, Parke, Bukowsky, & Braungart, 1992). Eisenberg와 Fabes(1994)에 의하면,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분노에 대처하는 반응은 어머니의 반응과 관계가 있다. 즉,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을 사용할수록 아동은 화가 났을 때 회피반응을 보였으며, 어머니가 위로해주는 반응을 보일수록 아동은 언어로 항의하는 대처반응을 보인 반면 감정 발산 반응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사회화 인자의 반응은 정서사회화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할 뿐더러, 부정적인 정서 상태는 다른 정서보다 사회화 경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Eisenberg et al., 1998). 예를 들어, 부모는 기쁨,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보다는 슬픔, 두려움, 특히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상태에 대하여 유아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고, 부모와 유아 사이에 오가는 정서와 관련된 대화도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더욱 잘 일어난다(Dunn & Brown, 1994). Eisenberg와 동료들(1996, 1998)에 따르면, 자녀의 정서적 반응에 대한 부모의 비지지적 반응은 자녀의 사회적 능력과 부적 관련성을 보여서,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처벌적 반응을 하는 경우, 취학전 유아는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또래와의 분노 상황에서 복수하려고 하거나 회피하고, 자신의 감정을 발산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의 최소화 반응은 낮은 인기도, 비건설적인 대처 전략, 외현화 문제 행동 등과 연결된다. 또한 취학전 아동의 부적 정서에 대해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을 보인 경우, 이는 아동이 10~12세가 되었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

가 보고한 아동의 문제행동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isenberg, Fabes, Shepard, Guthrie, Murphy, & Reiser, 1999). 반면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부모의 지지적인 반응은 유아가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하도록 촉진시키고 정서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자신의 욕구와 다른 사람의 요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돕는다(Garner et al., 1994).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 대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정서와 관련된 능력은 사회적 능력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서사회화에 대한 이해는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광범위한 시사점을 가진다. 한편, 학령전의 유아는 자신이 속한 문화에 적합한 정서표출규칙에 순응하고 이러한 규칙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기 시작하는(Harris, 1989) 시기인 만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유아의 정서사회화 실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모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족생활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에 대한 직접적인 양육 실재는 아동에게 다양한 정서 표현을 경험하게 하고 아동의 정서 탐색과 이해를 장려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아동이 가족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정서 관련 양육실재 중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점차 아버지의 양육자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남성의 역할을 대표하던 '부양자'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은 감소하면서 부모로서의 '양육자'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김소영, 옥선화, 2000). 아버지의 양육자 역할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아버지 본인들도 소위 '친구 같은 아버지'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아버지 역할에 대한 관심을 이전에 비해 많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연구들(이성희, 한은주, 1998; 한경혜, 1997)은 아버지역할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많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성역할 개념의 변화, 취업도 증가에 따른 양육문제와 가사분담,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하여 아버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정서사회화 역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과 질적으로 다르며, 아버지의 역할 역시 중요하고 의미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Geiger, 1996; Pruett, 2000),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본 국내 연구는 어머니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강희연, 강문희, 1999; 김희정, 1994; 박미정, 2001; 한유미, 손경화, 2004), 아버지의 정서

사회화 역할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및 직업, 그리고 가정의 소득수준과 같은 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 유형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 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 문제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은 어떠한 양상을 보이며, 두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은 유아의 연령 및 성별, 부모의 학력수준 및 직업과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에 위치한 3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3세~만5세 유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를 통해 설문지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부모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각자 집에서 응답하게 한 후 이를 회수하였다. 총 219개 가정에 배부된 설문지는 191개 가정에서 수거되어 87.2%의 회수율을 보였다. 수거된 설문지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거나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한 쪽의 설문지만 수거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자료 분석에 사용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 179부씩, 총 358부였다.

연구대상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자녀의 연령별 분포는 만 3세가 63명(35.2%), 만 4세가 64명(35.8%), 만 5세가 52명(29.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는 94명(52.5%), 여자는 85명(47.5%)으로 나타났다. 자녀수를 살펴보면, 외동이를 둔 경우가 55가정(30.7%), 2명인 경우가 119가정(66.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 분포는 300~4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9가정(38.5%)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이상인 경우가 67가정(37.4%)을 차지했다. 아버지의 학력 분포는 대학원졸 이상이 71명(39.7%)으로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N)	백분율 (%)
아동의성별	남	94	52.5
	여	85	47.5
아동의 연령	만3세	63	35.2
	만4세	64	35.8
	만5세	52	29.0
자녀수	1명	55	30.7
	2명	119	66.5
	3명 이상	5	2.8
아버지의 학력	고졸	39	21.8
	대졸	69	38.5
	대학원 졸	71	39.7
어머니의 학력	고졸	59	33.0
	대졸	77	43.0
	대학원 졸	43	24.0
아버지의 직업	전문관리직	72	40.2
	사무직	78	43.6
	판매서비스직	11	6.2
	기타	18	10.1
어머니의 직업	전문관리직	43	24.0
	사무직	59	33.0
	판매서비스직	12	6.7
	전업주부	65	36.3
가정의 월 수입	200만원 미만	13	7.3
	200~300만원 미만	30	16.8
	300~400만원 미만	69	38.5
	400만원 이상	67	37.4

가장 많았으며, 대졸 69명(38.5%), 고졸 39명(21.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직업별 분포는 조사대상 아버지 중 78명(43.6%), 72명(40.2%)이 각각 사무직과 전문관리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 분포를 살펴보면 대졸이 77명(43.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졸 59명(33.0%), 대학원졸 43명(24.0%)의 순서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어머니 중 취업모는 114명(63.7%), 전업주부는 65명(36.3%)으로 나타났다. 취업모 중 사무직이 59명(33.0%)으로 가장 많은 반면, 판매서비스직은 12명(6.7%)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 연구의 대상은 1, 2명의 자녀를 가진 화이트칼라 업종의 맞벌이 중산층 가정에서 주로 표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연구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유아의 성별, 연령, 가정의 월소득, 부모의 직업, 학력의 인구학적 특성을 묻는 문항 이외에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는 척도로 구성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Fabes와 동료들(1990)의 CCNES(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 Scale)를 번역해서 사용한 김희정(1994)의 척도와 Cortes(2002)의 CCNES-R(Revised Coping with Children's Negative Emotions)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 경험을 포함하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스트레스 반응', '차별적 반응', '정서표현격려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최소화 반응' 및 '정서 교수 반응'의 7가지 하위유형으로 나누어 제시한 후, 평소 부모가 각각의 하위유형에 속하는 반응을 자녀에게 어느 정도 보이는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스트레스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했을 때 부모가 느꼈던 불안이나 스트레스 정도를 반영하는 반응 유형(예: 아이의 부주의함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른다)이며, '차별적 반응'은 아동이 부정적인 정서를 표현할 때 부모가 벌을 주는 반응(예: 만약 울음을 그치지 않으면 아이가 좋아하는 일(예: TV시청)을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다)을 말한다. '감정표현 격려'는 유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해주는 반응(예: 속상할 때는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준다)이며, '최소화 반응'은 부모가 상황의 심각성을 최소화하거나 아동이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의 가치를 낮추어주는 반응(예: 곧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말해준다)을 말한다. '정서중심 반응'은 부모가 아동의 기분이 좋아지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위로해 주는 반응(예: 일단 아이를 달래고 아이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함께 재미있는 활동이나 놀이를 한다)이며, '문제중심 반응'은 아동이 스트레스에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격려하는 반응(예: 아이가 혼자 잠자러 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도록 도와준다)이다. 그리고 '정서 교수 반응'은 부모가 아동 자신이 경험한 정서의 명칭을 정확히 습득하고 왜 그러한 정서를 경험하게 된 건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반

응(예: 두려움이 무엇이고 왜 주사 맞을 때 무서운지 이해하도록 도와준다)을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김희정(1994)과 Cortes(2002)가 사용한 12개의 시나리오 중 아동학 전문가 2인 및 어린이집 교사 2인의 검토를 거쳐 한국의 경우에 보다 적합한 상황으로 판단되는 6개의 시나리오를 선정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는 총 6개의 시나리오에 대해 각각 7가지의 반응 유형이 제시되어서 총 42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하위반응별로 구성 문항의 내적 상관도를 검토한 결과 상관도가 떨어지는 9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반응 4문항, 차별적 반응 3문항, 감정표현격려 반응 6문항, 최소화 반응 4문항, 정서 교수 반응 6문항, 정서중심 반응 6문항, 문제중심 반응 4문항의 총 3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의 응답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7점)의 순으로 평정되는 7점 리커트 방식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점수가 가지는 반응에 가까운 것을 의미한다. 내적합치도로 구한 하위반응별 신뢰도는 어머니용 설문지의 경우 .59에서 .85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아버지용 설문지의 경우에는 .55에서 .85 사이에 분포하였다.

### 3.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win 12.0)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Cronbach  $\alpha$ 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하위 반응별로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paired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및 추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연구도구의 하위반응별 문항수 및 Cronbach  $\alpha$

하위 반응	문항수	Cronbach $\alpha$	
		아버지용	어머니용
스트레스 반응	4	.71	.59
차별적 반응	3	.63	.63
감정표현격려 반응	6	.70	.71
최소화 반응	4	.55	.59
정서 교수 반응	6	.85	.83
정서중심 반응	6	.61	.62
문제중심 반응	4	.62	.59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의 일반적 경향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아버지와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표 3>과 같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 결과,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표 3>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하위 반응별 평균과 표준편차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감정표현 격려 반응	최소화 반응	정서 교수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아버지(n=179)	2.68(1.06)	3.07(1.24)	3.65 (.94)	3.87 (.94)	4.20(1.10)	5.01 (.71)	5.14 (.79)
어머니(n=179)	2.87(1.00)	3.00(1.30)	3.83(1.00)	3.84(1.06)	4.45(1.11)	4.99 (.78)	5.43 (.82)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문제중심 반응(M=5.43, SD=.82)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고, 정서중심 반응(M=4.99, SD=.78)과 정서 교수 반응(M=4.45, SD=1.11)이 중간 이상의 반응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최소화 반응(M=3.84, SD=1.06)과 정서표현격려의 반응(M=3.83, SD=1.00)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처벌적 반응(M=3.00, SD=1.30)과 스트레스 반응(M=2.87, SD=1.00)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반응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도 어머니의 경우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서, 문제중심반응(M=5.14, SD=.79)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반응 점수를 보였으며, 정서중심 반응(M=5.01, SD=.77)과 정서 교수 반응(M=4.20, SD=1.10)이 중간 이상의 반응 수준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최소화 반응(M=3.87, SD=.94)과 정서표현격려의 반응(M=3.65, SD=.94)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처벌적 반응(M=3.07, SD=1.24)과 스트레스 반응(M=2.68, SD=1.06)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반응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수준과 아버지의 반응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본 결과, 일부 하위 반응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서, 문제중심 반응(t=3.56, p<.001)과 정서교수 반응(t=2.20, p<.05)의 경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 볼 때,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처벌적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적게 사용하는 반면, 문제중심이나 정서중심의 긍정적 반응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 차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러한 양상은 유아의 성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의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한유미 등(2004)의 결과와 일치한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은

부모의 직업에 따라 일부 영역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아버지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반응에서(F=2.97, p<.05), 어머니의 경우에는 처벌적 반응에서(F=3.01, p<.05) 직업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추후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는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부모와 그 외 다른 직업을 가진 부모 사이에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다른 직업을 가진 아버지에게 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스트레스 반응을 유의하게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경우에도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어머니가 전업 주부 또는 다른 직업을 가진 어머니에 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처벌적 반응을 유의하게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에 따른 차이는 아버지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경우에는 일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추후 검증 결과, 나머지 집단에 비해 고졸이하 집단의 어머니가 처벌적 반응(F=3.47, p<.05) 및 스트레스 반응(F=11.66, p<.001)을 유의하게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부모 반응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I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와 아버지의 정서사회화 실재가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반응을 비교해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첫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일부 영역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문제중심 반응을 가장 많이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서중심 반응, 정서 교수 반응, 최소화 반응, 감정표현격려 반응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스트레스 반응이나 처벌적 반응은 가장 적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보이는 반응 수준을 하위영역별로 비교해보았을 때 두 집단이 각각 가장 많이 보이는 반응과 가장 적게 보이는 반응의 순서가 정확히 일치하였다.

&lt;표 4&gt;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감정표현격려 반응		최소화 반응		정서 교수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유아 성별	남 2.92(1.03)		남 3.15(1.28)		남 3.81(1.04)		남 3.90(1.05)		남 4.54(1.05)		남 4.99(.85)		남 5.40(.88)		남 -45
	여 2.83(.98)	.62	여 2.85(1.30)	1.55	여 3.88(.97)	-42	여 3.78(1.07)	.79	여 4.36(1.17)	1.06	여 4.98(.69)	.15	여 5.45(.74)		
유아 연령	만3세 2.75(1.00)		만3세 2.84(1.35)		만3세 3.84(1.03)		만3세 3.77(1.15)		만3세 4.55(1.32)		만3세 5.05(.86)		만3세 5.53(.78)		
	만4세 3.08(1.02)	2.05	만4세 3.32(1.23)	3.03	만4세 3.64(1.00)	2.68	만4세 3.79(1.09)	.77	만4세 4.28(1.05)	1.15	만4세 5.01(.71)	.68	만4세 5.33(.91)	.93	
	만5세 2.80(.96)		만5세 2.81(1.26)		만5세 4.09(.93)		만5세 4.00(.88)		만5세 4.54(.88)		만5세 4.88(.76)		만5세 5.41(.73)		
모 학력	고졸 3.19(.98)a		고졸 3.18(1.30)a		고졸 3.69(.90)		고졸 3.85(1.02)		고졸 4.34(1.23)		고졸 4.84(.75)		고졸 5.27(.91)		
	대졸 2.97(.95)b	11.66***	대졸 3.12(1.37)b	3.47*	대졸 3.97(.98)	1.21	대졸 3.94(1.12)	.99	대졸 4.47(1.01)	.61	대졸 5.03(.72)	1.64	대졸 5.44(.75)	1.93	
	대학원졸 2.29(.90)b		대학원졸 2.56(1.09)b		대학원졸 3.81(1.17)		대학원졸 3.65(.96)		대학원졸 4.59(1.12)		대학원졸 5.11(.91)		대학원졸 5.59(.79)		
모 직업	전문관리직 2.64(1.12)		전문관리직 2.54(1.16)a		전문관리직 3.83(1.13)		전문관리직 3.76(1.15)		전문관리직 4.59(1.26)		전문관리직 5.15(.82)		전문관리직 5.36(.85)		
	사무 3.00(.94)	1.50	사무 3.01(1.32)a	3.01*	사무 3.68(1.02)	.85	사무 3.80(1.10)	.49	사무 4.37(1.25)	.91	사무 4.89(.75)	1.38	사무 5.31(.96)	1.04	
	판매서비스직 3.19(.90)		판매서비스직 3.44(1.60)b		판매서비스직 3.97(.54)		판매서비스직 4.15(1.25)		판매서비스직 4.87(.48)		판매서비스직 5.22(.61)		판매서비스직 5.50(.57)		
	전업주부 2.86(.99)		전업주부 3.23(1.24)a		전업주부 3.97(.97)		전업주부 3.88(.91)		전업주부 4.37(.94)		전업주부 4.92(.79)		전업주부 5.55(.69)		
소득 수준	200만원미만 2.77(1.24)		200만원미만 3.13(1.24)		200만원미만 3.64(1.05)		200만원미만 3.90(1.17)		200만원미만 4.68(1.25)		200만원미만 5.21(.85)		200만원미만 5.46(.87)		
	200~300만원 3.10(.85)	.66	200~300만원 3.32(1.35)	.82	200~300만원 3.67(.81)	.86	200~300만원 4.03(1.19)	.41	200~300만원 4.36(1.04)	.25	200~300만원 4.90(.98)	.47	200~300만원 5.36(.79)	.39	
	300~400만원 2.86(1.08)		300~400만원 2.92(1.29)		300~400만원 3.82(1.00)		300~400만원 3.78(.95)		300~400만원 4.45(1.07)		300~400만원 4.97(.75)		300~400만원 5.50(.75)		
	400만원이상 2.81(.95)		400만원이상 2.92(1.30)		400만원이상 3.98(1.08)		400만원이상 3.81(1.09)		400만원이상 4.45(1.18)		400만원이상 5.00(.71)		400만원이상 5.37(.89)		

\* p&lt;.05 \*\*\* p&lt;.001

&lt;표 5&gt;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따른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

	스트레스 반응		처벌적 반응		감정표현격려 반응		최소화 반응		정서 교수 반응		정서중심 반응		문제중심 반응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M(SD)	F	
유아 성별	남 2.62(1.05)		남 3.03(1.20)		남 3.66(.91)		남 3.99(.93)		남 4.23(1.09)		남 5.04(.65)		남 5.14(.75)		남 .00
	여 2.73(1.08)	-.70	여 3.11(1.29)	-.44	여 3.66(.95)	-.03	여 3.75(.93)	1.71	여 4.15(1.13)	.47	여 4.99(.77)	.53	여 5.14(.82)		
유아 연령	만3세 2.74(1.16)		만3세 3.08(1.18)		만3세 3.70(.99)		만3세 3.83(1.03)		만3세 4.22(1.22)		만3세 5.10(.68)		만3세 5.19(.79)		
	만4세 2.71(1.02)	.59	만4세 3.24(1.26)	1.50	만4세 3.61(.79)	.18	만4세 3.88(.82)	.09	만4세 4.27(1.07)	.60	만4세 4.95(.68)	.73	만4세 5.08(.71)	.33	
	만5세 2.54(1.00)		만5세 2.84(1.27)		만5세 3.67(1.01)		만5세 3.91(.97)		만5세 4.05(1.01)		만5세 4.99(.78)		만5세 5.15(.88)		
부 학력	고졸 2.85(1.03)		고졸 3.02(1.27)		고졸 3.56(.83)		고졸 3.81(.97)		고졸 4.29(1.03)		고졸 4.97(.53)		고졸 5.14(.52)		
	대졸 2.68(1.15)	.84	대졸 3.15(1.29)	.25	대졸 3.66(.91)	.36	대졸 3.93(.82)	.24	대졸 4.33(1.01)	1.80	대졸 4.89(.78)	2.59	대졸 5.05(.75)	.83	
	대학원졸 2.57(1.00)		대학원졸 3.01(1.19)		대학원졸 3.71(1.00)		대학원졸 3.85(1.03)		대학원졸 4.00(1.22)		대학원졸 5.16(.71)		대학원졸 5.22(.93)		
부 직업	전문관리직 2.45(1.06)a		전문관리직 3.02(1.36)		전문관리직 3.65(.92)		전문관리직 3.86(1.03)		전문관리직 4.06(1.23)		전문관리직 5.10(.75)		전문관리직 5.17(.86)		
	사무 2.87(1.07)a	2.97*	사무 3.08(1.10)	1.10	사무 3.62(.91)	.38	사무 3.85(.87)	.52	사무 4.33(.93)	.92	사무 4.93(.65)	.80	사무 5.09(.73)	.47	
	판매서비스직 3.09(1.01)b		판매서비스직 3.67(1.34)		판매서비스직 3.60(.73)		판매서비스직 4.20(.76)		판매서비스직 4.27(1.10)		판매서비스직 4.95(.82)		판매서비스직 5.00(.87)		
	기타 2.41(.88)a		기타 2.83(1.26)		기타 3.88(1.18)		기타 3.79(.96)		기타 4.00(1.36)		기타 5.10(.70)		기타 5.29(.67)		
소득 수준	200만원미만 3.00(1.16)		200만원미만 3.46(1.70)		200만원미만 3.44(1.09)		200만원미만 3.85(1.00)		200만원미만 4.32(1.13)		200만원미만 4.73(.50)		200만원미만 5.23(.74)		
	200~300만원 2.81(.85)	.73	200~300만원 3.29(1.07)	1.21	200~300만원 3.59(.95)	.38	200~300만원 4.03(.66)	.42	200~300만원 4.19(1.19)	.39	200~300만원 4.96(.71)	.90	200~300만원 5.15(.60)	.36	
	300~400만원 2.62(1.13)		300~400만원 2.89(1.15)		300~400만원 3.68(.99)		300~400만원 3.88(.96)		300~400만원 4.27(1.08)		300~400만원 5.06(.73)		300~400만원 5.07(.81)		
	400만원이상 2.60(1.07)		400만원이상 3.07(1.30)		400만원이상 3.71(.81)		400만원이상 3.80(1.01)		400만원이상 4.08(1.11)		400만원이상 5.06(.71)		400만원이상 5.19(.85)		

\* p&lt;.05

이지선과 유안진(1999)에 의하면, 초등학교 5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의 분노 표현에 대한 어머니의 수용이 낮게 나타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서양의 부모들보다 자녀의 분노 표현에 대해 더 엄격하다고 추론하고, 이는 연령상 아동 후기로 접어들면서 분노 조절에 대한 부모의 정서 사회화 압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살펴본 이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수용하고 지지하는 문제중심 반응, 정서중심 반응, 정서 교수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기라는 자녀의 연령 특성을 고려한 반응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적으로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모의 심리적 문제와 상관(이완정, 2004)이 있는 바, 이 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상대적으로 처벌적 반응과 스트레스 반응을 적게 보인 것은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안정적인 고학력의 맞벌이 가정인 상당수를 차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외에도 이 연구에서 부모가 보이는 정서표현격려의 반응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으로 분노에 대해 억제의 조절규칙이 적용되었고(신양재, 2004) 이러한 부분이 여전함을 반영한다고 해석된다. 즉,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정서 표출을 가급적 통제하는 것을 보다 성숙한 방식으로 간주하고, 자녀교육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아버지가 “부정적 감정조절하기”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유아가 오히려 사회적 능력이 낮고 친구들의 감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서(김은지, 박성연, 2002), 부모가 유아의 부정적 감정의 통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아동의 친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지적된다.

둘째, 부모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와 관련하여 일부 영역을 제외하면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한국남편의 자녀양육참여 양상은 자녀의 습관 지도 라든가 놀이지도와 같은 활동이 주류를 이루면서(강희경, 조복희, 1999)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은 어머니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원인과 관련하여 가능한 해석으로는, 무관심을 아버지의 덕목으로 삼던 과거에 비해 현대 사회로 오면서 감정 표현을 잘하고 반응을 보이는 아버지상에 대해 보다 큰 가치를 두기 때문일 가능성이 지적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문제중심 반응 및 교수 반응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유의하게 많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상생활 도중 유아의 문제 행동과 맞

부딪히는 상황에 접하는 경우가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셋째, 유아기 자녀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반응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만3세~만5세의 시기가 초등학교 입학 이전으로, 아직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자녀의 엄격한 사회화 기대 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 범위를 만3세 이전과 학동기 이후로 넓혀서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반응 차이를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반응과 아버지의 반응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자녀의 어린 연령을 고려하여 아직은 성별을 강화하는 사회화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가능성, 부모들이 양성적인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 역할이 과거에 비해 많이 평준화된 것처럼 자녀의 성별에 따른 태도의 차이도 과거에 비해 감소했을 가능성 등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선행연구(이지선, 유안진, 1999)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남아와 여아에 따라 정서 사회화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양육적인 존재로 사회화됨으로써 타인의 정서적 욕구에 반응을 보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존재로 크게 된다고 해서, 이는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이 자녀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와 불일치한다. 자녀의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고자 하는 부모의 정서사회화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보다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및 학동기 자녀를 모두 포함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부모의 직업 및 교육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학력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 수준 및 직업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사회계층에 따른 부모 양육행동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과 사회계층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주고 협동적인 반면 학력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은 자녀를 보다 통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계층은 신체적인 벌의 사용, 명령의 사용, 교훈적인 교수학습, 아동의 외적인 행동에 기초한 훈육방법 등을 강조하는 행동과 부적 관련이 있고, 반면 부모자녀사이의 평등주의적 관계, 부모의 애정과 참여, 아동에게 죄의식이나 부끄러움에 호소하는 심리적 기법의 사용 등과는 정적 관계가 있다

(Gescas, 1979; 김희정, 1994에서 재인용).” 즉, 부모의 양육행동과 사회계층 간에 나타나는 이러한 관계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에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예상된다.

유아기 자녀가 있는 취업모를 대상으로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본 바(이완정, 2004)에 의하면,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는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경유하여 유아의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와 유아의 적응 간에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태도 간에 그리고 취업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적응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그런데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 수준은 가정의 월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취업모가 높은 집단의 취업모보다 높아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이 부모의 직업 지위 또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이 연구의 결과를 설명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설명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예컨대, 이 연구에서는 부모의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만을 살펴보았을 뿐 실제로 업무와 관련하여 부모가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의 지각을 살펴보지는 않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른 부모의 반응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연구의 조사대상이 전반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가진 집단에 집중된 결과로 추측되는 바, 가정의 소득수준을 좀 더 다양화하고 부모가 실제로 경험하는 경제적 스트레스 등의 변인을 추가하여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반응에 대한 실태 조사를 목적으로 했고, 이를 통해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일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유아기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정서사회화 실체가 유아의 개인 특성보다는 부모 자신의 특성에 의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부모의 반응이 유아의 정서사회화에 중요한 만큼 (Eisenberg et al., 1996, 1998, 1999; Garner et al., 1994) 부모의 반응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규명이 요구되며, 특히 부모의 부정적 반응을 야기하는 맥락에 대한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조사대상 부모가 전반적으로 학력수준이 높고 특정 직업군에 편포되어 동질성이 높은 만큼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녀의 정서사회화 역할과 관련하여

부모 요인에 따른 차이를 좀 더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을 설문지의 시나리오 상황으로 살펴보았기 때문에 부모들의 반응이 실제 반응 유형이라기보다는 태도의 반영이었을 가능성이 지적된다. 부정적 정서가 수반된 실제 상황에서 발생하는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관찰을 통해 자료를 보완해서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주제어** : 부정적 정서, 정서사회화, 어머니의 반응, 아버지의 반응

## 참 고 문 헌

- 강희정, 조복희 (1999) 3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사무직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 역할관과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0(2), 41-55.
- 강희연, 강문희 (1999)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부모의 반응유형, 유아의 대처반응 및 또래수용간의 관계 연구. 아동학회지, 20(3), 171-182.
- 김소영, 옥선화 (2000)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9.
- 김은지,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사회화 신념과 아동의 사회적 행동. 아동학회지, 23(3), 187-203.
- 김희정 (1994) 어머니가 지각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동의 대처반응.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2001) 자녀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유형,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스트레스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 신양재 (2004) 조선시대 아동교육용 문헌에 나타난 정서과정에 대한 규범적 기대(2). 대한가정학회지, 42(11), 17-30.
- 이강이, 최인숙, 성미영 (2007). 부모의 정서사회화와 유아의 정서성 발달의 관계. 아동학회지, 인쇄 중.
- 이성희, 한은주 (1998) 기혼남성 아버지 역할 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23-39.
- 이숙현 (1997)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집, 271-289.
- 이완정 (2004) 취업모의 심리적 문제와 양육태도 및 유아의 적응. 아동권리연구, 7(1), 307-327.
- 이지선, 유안진 (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한경혜 (1997)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남성과 한국사회.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33-52.
- 한유미, 손경화 (2004) 유아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1), 197-206.
- Cassidy, J., Parke, R. D., Butkovsky, L., & Braungart, J. M. (1992) Family-peer connection: The rol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and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Child Development*, 63, 603-618.
- Cortes, R. C. (2002) Parent's awareness and management of emotion: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outcom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of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Denham, S. A. (1998) *Emotional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NY: The Guilford Press.
- \_\_\_\_\_ (1993) Maternal emotional responsiveness and toddlers' social-emotional competence. *J.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4, 715-728.
- \_\_\_\_\_, Zoller, D., & Couchoud, E. A. (1994) Socialization of preschoolers' emotional understan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30(6), 928-936.
- Dunn, J. & Brown, J. (1994) Affect expression in the family, children's understanding of emotions, and their interactions with other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137.
- \_\_\_\_\_, & Beardsall, L. (1991) Family talk about feeling states and children's later understanding of others' emo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48-45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_\_\_\_\_, & Fabes, R. A. (1994) Mothers'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temperament and anger behavior. *Merrill-Palmer Quarterly*, 40, 138-156.
- \_\_\_\_\_, Carlo, G., & Karbon, M. (1992) *Emotional responsivity to others: Behavioral correlates and socialization antecedents*. In N. Eisenberg, & R. A. Fabes(Eds.), *Emotion and its regulation in early development: New directions in child development*(pp. 57-74). San Francisco: Jossey-Bass.
- \_\_\_\_\_, & Murphy, B. C. (1996) Parents' reaction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Relations to children's social competence and comforting behavior. *Child Development*, 67(5), 2227-2247.
- \_\_\_\_\_, Shepard, S. A., Guthrie, I. K., Murphy, B. C., & Reiser, M. (1999) Parental reactions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quality of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70(2), 513-534.
- Garner, P. W., Jones, D. C., & Miner, J. L. (1994) Social competence among low-income preschoolers: Emotion socialization practices and social cognitive correlates. *Child Development*, 65, 622-637.
- Geiger, B. (1996) *Fathers as primary caregivers*. Greenwood Press.
- Harris, P. L. (1989) *Children and emotion: The development of psychological understanding*. Oxford: Blackwell.
- \_\_\_\_\_ (1994) The child's understanding of emotion: The developmental process and the family environment.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3-28.
- Parke, R. D. (1994) Progress, paradigms, and unresolved problems: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emotion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57-169.
- Pruett, K. D. (2000) *Fatherhood: Why father care is as essential as mother care for your child*. N.Y.: Free Press.
- Saarni, C. (1999)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Y: The Guilford Press.
- Tomkins, S. S. (1991) *Affect, imagery, and consciousness(vol.3): The negative affects: Anger and fear*. N.Y.: Springer.

(2006. 07. 20 접수; 2007. 05. 17 채택)